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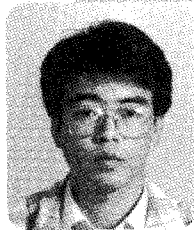


여름철 모돈관리의 포인트

돈콜레라에 이어 구제역의 발생으로 대일 돈육수출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양돈장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생산성을 떠나서 질병에 의해 농장이 한 순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으며, 설령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가올 돈가 폭락에 대한 걱정으로 사육의욕이 떨어진다고 하는 농장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장 휴업 등의 손실은 발생지역내 농장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여파, 즉 수출길이 막힘으로 인한 돈가 하락의 파급효과는 전체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농장에서는 질병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맞게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질병에 대한 방역강화 뿐만 아니라 여름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대비를 잘 하는 농장들은 이 번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파고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여름철관리는 양돈업에 있어서 1년을 좌지우지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절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혹서기 대책을 완료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더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일반관리

- 방목장에 수욕장을 마련하고, 주변에 차광망 설치하여 일사병을 방지한다.
- 모돈의 목부근을 향하게 하여 점적시설 및 송풍기 덕트를 설치하고, 응돈방에도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다.
- 전 돈사에 송풍기를 설치한다.
- 가정용 선풍기를(이동식) 준비한다. → 교배시, 또는 분만시 심하게 헐떡이는 모돈에게 틀어주기 위함.
- 스톨사, 분만사에 직사광선 유입방지용 차광망을 설치한다.
- 분만사에 물 호스를 준비한다. → 식욕부진 모돈이나 분만전후 모돈에게 수시로 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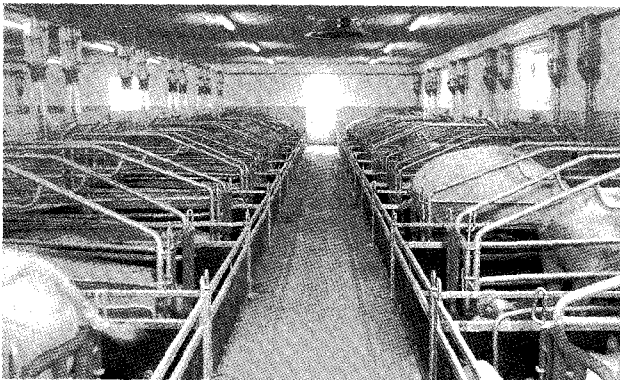
급수해 주기 위함.

- 분만사 입식 모돈의 체표 세척 및 약욕 시설을 갖춘다.
- 돈사 천정 단열재 보강(상황에 따라 돈사 지붕에 물 살포)
- 돈사내에 온, 습도계 비치하여 환경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2. 모돈에 충분한 사료섭취량을 이루기 위한 일반관리

여름철 모돈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모돈에 충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돈의 각 번식 단계별 사료요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목표 급여량을 충분히 먹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 신선한 음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분만을 전후해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이유시까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 임신돈의 바디컨디션 유지를 위한 관리를 체계화한다. 즉 모돈의 건비 상태에 따라 사료 급여량 조절을 전체 모돈에 주 1회 실시한다.



이때 분만

1주전까지는 최적의 바디컨디션을 맞춰 주어야 한다. 분만 1주전부터는 사료량을 서서히 줄여 나가며, 분만 당일엔 충분한 음수만을 공급해 주고, 절식 시켜도 무방하다.

- 임신말기 모돈의 체형점검. 특히 과비를 방지하며, 음부 및 유방이 부을 경우는 즉시 사료를 감량한다.

- 모돈에 비타민제, 미네랄 제제를 추가로 공급한다. (청초급여) → 식욕개선

- 모돈이 만성소모성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투약 프로그램 실시.

- 급수기, 닛플 점검 및 사료통 청소를 자주 해준다.(특히 부패사료를 먹게되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3. 포유모돈의 사료섭취량을 늘려 주기 위한 관리사항

- 분만후 이유시까지 일 평균 6kg정도의 사료 섭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모돈에게는 별도의 에너지원과 영양제, 라이신등을 보강해 주도록 한다.

- 분만직후부터 사료량을 급격히 늘리지 말고 서서히 늘려나가 분만후 7일령에 5~6kg 정도를 하루에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

- 탈진한 모돈은 물을 먹으려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강제급수를 실시한다. 또한 포유모돈의 경우 낮에 1~2회 정도 호스를 이용하여 누워있는 모돈에게 강제급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유모돈의 경우 포유일수의 경과에 따라 음수요구량이 변하지만 그 범위

는 1일 두당 14l~29l 정도이다.

- 포유모돈 사료급여 횟수는 일일 3회 급여한다. 식욕부진 모돈은 급여횟수를 증가하고 사료를 신선한 물과 함께 연사한다. 체온측정을 하여 39.5℃를 넘지 않도록 해열제, 항생제, 진정제 및 수액처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 분만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만 유도제와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분만 시간을 단축 시켜 준다. 고온 환경 하에서 모돈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분만 지속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산 증가 및 분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분만예정일을 지나서 분만하게 될 경우 특히 여름철에는 난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분만유도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 초산돈, 과비돈은 분만직후 해열제와 항생제 주사

- 분만사 내의 초산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고 특별관리 실시

- 분만예정일 최소 7일 이전 새벽에 분만대기돈으로 이동.

- 피드빈 단열

4. 임신초기와 말기 모돈의 관리가 중요하다.

- 임신초기 : 교배후 4주 동안에 고온 스트레스를 모돈이 받게 되면 배아의 조기 사망이 증가하여 산자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초기 유산이 증가하기도 한다.

- 임신말기 : 임신말기에는 각종 백신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더위에 지친 만삭 모돈에게

는 심한 부담을 안겨 준다. 또한 만삭 모돈들은 몸집이 커지므로 스톨에서 서로 밀착이 되므로 체열 발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돈들이 송풍기의 바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본다.

5. 모돈의 과비를 방지한다.

과비 모돈은 과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하에서 과비 모돈은 두터운 지방층에 의해 체열 발산이 어려워지고, 또한 무거운 체중유지를 위해 열생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더욱 견디기 힘들게 된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전에 모돈 체형을 날렵하게 다듬어 보자.

- 모돈의 산차별 그리고 각 단계별 정상 바디컨디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비 모돈이 많은 농장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모돈의 바디컨디션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다)

- 모돈의 각 단계별로 체형에 맞게 사료조절을 한다.

(주 1회 체형 및 임신 일령에 따라서 사료량 조절)

- 문제 모돈 및 노산돈의 계획적인 도태

- 분만을 및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 세밀한 교배관리가 요구된다.

- 이유일령에 따른 모돈 바디컨디션 관리가 필요함. (예 : 이유일령이 3주령 이내일 때는 4주령 이유 보다 전체적으로 모돈의 상태가 약간 마른 듯한 것이 좋다) **양돈**